

# 가족 내 가사분담과 성역할 인식에서 나타나는 양성평등 실태<sup>1)</sup>

*Gauging Gender Equality in Terms of Household  
Labor Division and Gender-role Perception*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본고는 가족 내 성역할을 중심으로 가사활동 및 양육활동의 부부간 분담실태와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가사활동 전반에 걸쳐 약 70% 수준의 부인집중 현상이 관찰되고 있었다. 그리고 자녀양육활동의 전반에 대해서도 여성 집중성은 70~80% 수준에서 보편화되어 있었다. 가사활동과 양육활동의 부부간 분담실태에서 확인된 것과 달리, 성역할 인식에서는 전통적 성역할 구분이나 성차별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인식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런 분석결과에서 우리는 인식과 행동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식의 차원에서는 전통적 규범을 탈피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및 각종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된 반면, 실제 가사활동의 양성평등적 분담은 실천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불일치로 인하여 가족단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사회적으로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양성불평등에 따른 가족 갈등을 방지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정책적 요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활성화, 근로시간의 축소, 남성의 육아참여기회 확대, 그리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 1. 머리말

현대 사회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겪으면서 급격히 변해왔다. 이런 사회 변화는 가족의 형태와 가족생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유인해왔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족관계와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진행된 가족의 변화와 개인 역할의 변화는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 내에서 관계와 역할의 재정립은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출산율의 저하와 같은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가족의 변화와 함께 가족관계 및 구성원의 역할변화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집중

1) 본고는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 보고서(김승권 외, 2012,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각 분석 항목의 특성별 세부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되고 있다.

이 글은 가족 내 성역할을 중심으로 가사활동 및 양육활동의 부부간 분담실태와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젠더(gender) 관점을 반영한 양성평등 실태에 초점을 둔다. 우선 가사활동과 양육활동의 부부간 분담 방법, 가족 내 의사결정 구조 분석을 통해 양성평등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 주장에 대한 찬성 정도를 측정하여 성역할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2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15~64세 기혼자 가구를 분석 표본으로 설정하였다.<sup>2)</sup>

## 2. 가사분담 및 부부간 의사결정

### 1) 가사활동 분담

일반적으로 가사활동은 자녀양육 활동과 일상적 가사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일상적 가사활동과 양육활동을 구분하기 전에 전체 가사활동의 부부간 분담방법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사활동의 분담 방법에서 전적으로 부인이 담당하는 비율은 21.8%, 주로 부인이하고 남편이 일부 도움을 주는 비율은 65.8%로 부인의 가사활동 부담이

높았다. 부인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전체 비율은 87.5%로써, 양육과 가사활동에서 전통적인 여성중심의 성역할이 여전히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가사활동 및 양육활동의 분담 방법에서 남성 응답자와 여성응답자의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은 부부가 반씩 나누어 양육과 가사를 분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8.8%인 반면, 여성은 9.2%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주로 남편이 하고 부인이 돕는다고 응답한 남성은 5.2%였지만 여성은 1.0%뿐이었다. 이는 자녀 양육과 가사활동의 분담에서 실제 역할에 대한 평가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가사활동 및 양육활동의 분담에서 남성은 자신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여성은 남편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기대와 실재가 일치하지 않고, 부부의 권력관계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다음은 가사활동과 양육활동을 각각 종류별로 구분하여 부부간 분담방법을 살펴보았다. 우선 가사활동은 식사요리 준비, 설거지, 세탁, 시장보기, 집안청소로 구분하였다. 식사요리 준비를 부부가 어떻게 분담하는 지 조사한 결과, 전적으로 부인이 한다는 응답이 58.7%, 주로 부인이 하고 남편이 도와준다는 응답비율이 32.5%였다. 결과적으로 식사요리 준비에서 부인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전체 비율은 91.2%로 매우 높았다. 식사 준비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성역할이

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본고에서 분석한 항목은 2012년에 처음 조사됨으로써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수는 없었음.

표 1. 기혼가구(15~64세)의 부부간 양육과 가사활동 분담 방법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부인	주로 부인 남편 도움	반씩 나누어함	주로 남편 부인 도움	전적으로 남편	계(수)
전체		21.8	65.8	10.6	1.7	0.2	100.0(8,309)
기혼남성		12.4	62.6	18.8	5.2	1.0	100.0(1,260)
연령	15~29세	11.9	41.7	39.2	2.4	4.8	100.0( 23)
	30~39세	7.6	62.2	24.6	4.2	1.4	100.0( 216)
	40~49세	7.1	68.0	19.1	5.5	0.3	100.0( 369)
	50~59세	17.5	61.6	13.7	6.8	0.4	100.0( 471)
	60세 이상	16.1	57.3	22.1	1.6	2.9	100.0( 180)
기혼여성		23.4	66.3	9.2	1.0	0.0	100.0(7,049)
연령	15~29세	10.3	69.4	19.4	0.9	-	100.0( 386)
	30~39세	16.1	71.3	11.3	1.4	-	100.0(2,191)
	40~49세	24.2	67.8	7.1	0.8	0.1	100.0(2,503)
	50~59세	33.2	58.4	7.7	0.7	-	100.0(1,807)
	60세 이상	34.5	57.6	4.2	3.7	-	100.0( 162)

주: 분석대상은 기혼가구 중 유배우자로 한정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사활동 중에서 설거지를 전적으로 부인이 담당하는 비율은 44.1%, 주로 부인이 담당하고 남편이 도와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42.9%였다. 부인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전체 비율이 총 87.0%로, 식사요리 준비와 함께 부엌일은 주로 부인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거지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이런 전통적 성역할 의식이 아직도 일반화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사활동 중에서 세탁의 경우, 전적으로 부인이 담당하는 비율은 48.3%, 주로 부인이 담당하고 남편이 도와주는 비율은 37.9%로, 세탁 분담 역시 부인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전체 비율이

86.2%로 매우 높았다. 식사 준비나 설거지와 마찬가지로 세탁 일도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세탁 활동에서 부부가 반씩 나누어 하는 비율이 20.6%로 남성의 참여는 앞서 살펴본 가사활동보다 다소 높았다.

가사활동 중에서 시장보기를 전적으로 부인 하는 비율은 30.0%, 주로 부인이 담당하지만 남편이 도와주는 비율은 45.2%였다. 부인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전체 비율은 75.2%로, 앞서 분석한 다른 가사활동에 비해서 남편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장보기에 남성의 참여가 다른 가사활동보다도 다소 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사활동 중에서 집안청소를 전적으로 부인이 담당하는 비율은 28.7%, 주로 부인이 담당하지만 남편이 도와주는 비율은 49.6%이었다. 집안청소의 경우 부인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전체 비율은 78.3%로, 부인집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사활동의 분담 정도에 대한 태도에서 남녀의 인식 차이는 각 활동에서 전반적으로 관찰된다. 식사요리 준비 활동의 경우 부부가 반씩 나누어 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4.5%, 여성의 경우 6.3%로 나타남으로써 남

녀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경향은 설거지, 세탁, 시장보기, 집안청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한편 가사활동 분담 방법은 시간의 가용성에 따라서 차별적일 수 있다. 특히 남성의 가사 참여 정도가 요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가사 참여 정도는 평일에 비해 토요일과 일요일에 그 비중이 증가한다. 반면 여성의 가사 참여 정도는 평일에 비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약간 감소한다. 그러나 주말에 남성의 가사 참여 비중이 증가하는 정도에 비해서 여성의 가

표 2. 기혼가구(15~64세)의 부부간 가사활동 분담방법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부인	주로 부인 남편 도움	반씩 나누어함	주로 남편 부인 도움	전적으로 남편	계수
식사요리 준비	전체	58.7	32.5	7.6	1.1	0.2	100.0(8,314)
	기혼남성	41.1	40.1	14.5	3.5	0.9	100.0(1,261)
	기혼여성	61.8	31.2	6.3	0.6	0.1	100.0(7,053)
설거지	전체	44.1	42.9	10.6	2.0	0.3	100.0(8,314)
	기혼남성	26.7	48.3	17.9	6.0	1.1	100.0(1,261)
	기혼여성	47.2	42.0	9.3	1.3	0.2	100.0(7,053)
세탁	전체	48.3	37.9	11.3	2.1	0.3	100.0(8,314)
	기혼남성	29.7	42.9	20.6	5.7	1.1	100.0(1,261)
	기혼여성	51.6	37.0	9.7	1.5	0.2	100.0(7,053)
시장보기	전체	30.0	45.2	22.4	2.0	0.3	100.0(8,314)
	기혼남성	19.3	47.6	26.8	5.1	1.3	100.0(1,261)
	기혼여성	31.9	44.8	21.7	1.5	0.2	100.0(7,053)
집안청소	전체	28.7	49.6	17.8	3.2	0.6	100.0(8,314)
	기혼남성	15.0	51.6	24.7	7.8	1.0	100.0(1,261)
	기혼여성	31.2	49.3	16.6	2.4	0.6	100.0(7,053)

주: 분석대상은 기혼가구 중 유배우자로 한정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표 3. 기혼가구(15~64세)의 요일별 부부간 가사활동 분담 방법

(단위: %, 명)

구 분	(분석 대상수)	평일			토요일			일요일		
		부인	남편	가족/도우미	부인	남편	가족/도우미	부인	남편	가족/도우미
전체	(8,316)	79.8	15.8	4.4	74.1	22.3	3.5	72.5	24.2	3.3
기혼남성	(1,261)	70.0	26.1	3.9	66.5	30.2	3.3	66.0	30.9	3.1
기혼여성	(7,056)	81.6	14.0	4.5	75.5	20.9	3.5	73.6	23.0	3.4

주: 분석대상은 기혼가구 중 유배우자로 한정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사참여 비중의 감소 정도는 크지 않다. 즉 주말에 남성이 가사에 많이 참여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주말가사활동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2) 양육활동 분담

앞에서는 가사활동의 부부간 분담방법을 살펴보고, 여기서는 자녀 양육활동의 부부간 분담방법을 살펴보았다. 양육활동은 학교공부 돌보기, 놀아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교로 구분하였다. 우선 양육활동 중 학교공부 돌보기를 분담하는 방법에서 전적으로 부인이 담당하는 비율은 34.8%, 주로 부인이 담당하고 남편이 도와주는 비율은 41.8%로, 부인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전체 비율이 76.6%로 높았다.

자녀 양육활동 중에서 자녀와 놀아주기의 부부의 분담방법에서, 전적으로 부인이 하는 비율은 11.8%, 주로 부인이 하고 남편이 돕는 비율은 48.7%의 분포를 보였다. 자녀와 놀아주기에 부인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체 비율은 60.5%로, 앞서 분석한 가사활동과 다른 자녀 양육활동의 분담 방법에서 부인이 중심으로 참

여하는 활동보다는 크게 낮았다. 즉 자녀와 놀아주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 양육활동 중에서 보육시설이나 학교의 등하교를 전적으로 부인이 전담하는 비율은 41.9%, 주로 부인이 전담하고 남편이 돕는 비율은 36.5%로, 보육시설이나 학교의 등하교 분담 방법에서 부인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체 비율이 78.4%로 매우 높았다. 취업한 남편들이 출퇴근시간에 자녀의 등하교에 관여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가사활동의 분담정도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활동 분담정도에서 남녀의 인식 차이가 각 활동에서 전반적으로 관찰된다. 자녀의 학교공부를 돌볼 때 부부가 반씩 나누어 담당하는 비율은 남성 응답자 33.0%, 여성 응답자 17.2%로 나타나, 가사활동과 마찬가지로 양육돌봄에서도 남녀 인식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 가사활동 분담과 마찬가지로 양육활동 분담 방법도 시간의 가용성에 따라서 차별적일 수 있고, 특히 남성의 참여 정도가 요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지 관심을 가질 수 있

표 4. 기혼가구(15~64세)의 부부간 양육 활동 분담방법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부인	주로 부인 남편 도움	반씩 나누어함	주로 남편 부인 도움	전적으로 남편	계(수)
학교공부	전체	34.8	41.8	18.9	4.0	0.5	100.0(4,672)
	기혼남성	14.4	43.2	33.0	7.9	1.5	100.0( 515)
	기혼여성	37.4	41.6	17.2	3.5	0.3	100.0(4,157)
놀이주기	전체	11.8	48.7	30.8	8.0	0.5	100.0(4,686)
	기혼남성	5.0	42.2	42.2	10.1	0.5	100.0( 516)
	기혼여성	12.7	49.5	29.4	7.8	0.5	100.0(4,170)
보육시설, 학교 등·하교	전체	41.9	36.5	17.5	3.4	0.6	100.0(4,674)
	기혼남성	22.3	41.5	28.3	6.9	1.0	100.0( 515)
	기혼여성	44.4	35.9	16.1	3.0	0.6	100.0(4,159)

주: 분석대상은 기혼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유배우자로 한정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편의 참여비율은 평일 18.8%, 토요일 28.4%, 일요일 31.2%로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부인의 참여비율은 평일 76.7%, 토요일 69.1%, 일요일 66.6%로 점차 감소한다. 자녀 양육활동의 요일별 변화에서 남성이 인식하는 참여 정도보다 여성이 인식하는 남편 참여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가사활동과 달리 양육활동의

경우 주말에 남편 참여가 여성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 3) 부부간 의사결정

양성평등의 실태에서 가족 내 권력관계는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여기서는 가족 내 권력관계를 의사결정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으

표 5. 기혼가구(15~64세)의 응답자특성별, 요일별 자녀양육활동의 분담 방법

(단위: %, 명)

구 분	(분석 대상수)	평일			토요일			일요일		
		부인	남편	가족/도우미	부인	남편	가족/도우미	부인	남편	가족/도우미
전체	(4,685)	76.7	18.8	4.6	69.1	28.4	2.5	66.6	31.2	2.2
기혼남성	( 516)	65.6	29.7	4.7	61.0	36.5	2.5	60.0	38.0	2.0
기혼여성	(4,169)	78.0	17.4	4.5	70.1	27.4	2.5	67.4	30.4	2.2

주: 분석대상은 기혼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유배우자로 한정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며, 의사결정 방법은 일상생활비 지출, 주택매매 및 이사, 투자 및 재산증식, 자녀양육 및 교육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비 지출의 경우 대체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이 43.7%,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이 21.9%였다. 결국 부인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전체 비율은 65.6%로 높은 수준이었다.

부부간 의사결정에서 주택매매 및 이사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은 75.7%로 매우 높았다. 남편중심 결정비율이나 부인중심 결정비율은 10%내외로 낮은 수준이었다. 주택매매 또는 이사의 경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있었다.

부부간 의사결정에서 투자 및 재산증식의 경우도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은 70.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주택매매 및 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 및 재산증식 역시 가족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규모가 큰 가족 내 경제적 변화는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부간 의사결정에서 자녀양육 및 교육 관련 사항은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59.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체로 부인이 결정한다는 비율은 31.5%,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한다는 비율은 5.9%였다. 결과적으로 부인이 중심으로 결정하는 전체 비율은 37.4%인 반면, 남편이 중심으로 결정하는 전체 비율은 3.0%수준에 그쳤

다. 이는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에 있어 부인 결정권이 우선시되는 경향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부부간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태도에서도 남녀의 인식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일상생활비 지출의 의사결정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비율은 남성의 경우 36.7%, 여성의 경우는 27.6%로 9.1%pt 격차가 나고 있다. 부부간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남녀의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자녀양육 및 교육 항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특징적인 것은 주택매매 및 이사, 투자 및 재산증식 항목에서는 인식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즉 권력관계가 평등한 경우 남녀의 인식격차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3. 성역할에 대한 인식

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양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한다”, “불경기에는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시켜도 괜찮다”는 4가지 주장으로 구분하여 찬성하는 정도를 측정·분석하였다.

성역할 인식에서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

표 6. 기혼가구(15~64세)의 부부간 의사결정 방법

(단위: %, 명)

구 분		일상생활비 지출					계(수)
		전적으로 남편 결정	대체로 남편 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 결정	전적으로 부인 결정	
일상생활비 지출	전체	1.0	4.3	28.9	43.7	21.9	100.0(8,315)
	기혼남성	1.5	7.6	36.7	40.4	13.8	100.0(1,261)
	기혼여성	1.0	3.7	27.6	44.3	23.4	100.0(7,055)
주택매매 및 이사	전체	2.3	10.9	75.7	8.4	2.8	100.0(8,315)
	기혼남성	3.3	13.9	73.4	7.2	2.2	100.0(1,261)
	기혼여성	2.1	10.3	76.1	8.7	2.9	100.0(7,055)
투자 및 재산증식	전체	3.1	13.4	70.0	10.3	3.3	100.0(8,314)
	기혼남성	3.8	15.7	69.7	8.4	2.3	100.0(1,261)
	기혼여성	2.9	13.0	70.0	10.7	3.4	100.0(7,054)
자녀양육 및 교육	전체	0.7	2.3	59.5	31.5	5.9	100.0(6,062)
	기혼남성	1.3	3.5	67.4	23.8	4.0	100.0( 790)
	기혼여성	0.7	2.2	58.3	32.7	6.2	100.0(5,272)

주: 분석대상은 기혼가구 중 유배우자로 한정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은 57.9%,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비율은 8.5%로 나타남으로써, 이 주장에 부정하는 비율보다 긍정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은 41.0%,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은 5.7%로 나타났다. 전체 긍정의 비율이 46.7%로 절반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아, 남성의 임금노동과 여성의 가사노동이라는 전통적 성역할 구분이 일반화되어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규범은 그동안 많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은 61.5%,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비율은 13.9%로 나타났다. 남편의 현재 가사분담 정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전체 비율이 75.4%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가사분담에서 부부간의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경기에는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시켜도 괜찮다”는 주장에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은 20.0%,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은 1.5%로, 이 주장에 긍정하는 전체 비율은 21.5%에 그쳤다. 경제활동의 단위를 가족으로 보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희생을 감수하던 전통적 인식과 달리, 사회



표 7. 기혼가구(15~64세)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수)
아내는 남편의 경력 쌓기에 도움을 주어야 함	전체	3.3	30.3	57.9	8.5	100.0(10,052)
	기혼남성	3.0	31.9	56.4	8.7	100.0( 1,818)
	기혼여성	3.3	30.0	58.2	8.5	100.0( 8,234)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가족을 돌보아야 함	전체	7.0	46.3	41.0	5.7	100.0(10,052)
	기혼남성	4.7	43.2	45.0	7.1	100.0( 1,818)
	기혼여성	7.5	47.0	40.1	5.3	100.0( 8,234)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분담해야 함	전체	1.2	23.4	61.5	13.9	100.0(10,049)
	기혼남성	1.7	29.9	62.6	5.8	100.0( 1,816)
	기혼여성	1.1	21.9	61.2	15.7	100.0( 8,232)
불경기에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 해고시켜야 함	전체	33.0	45.5	20.0	1.5	100.0(10,050)
	기혼남성	23.2	51.6	23.1	2.1	100.0( 1,816)
	기혼여성	35.2	44.1	19.3	1.4	100.0( 8,234)

주: 분석대상은 기혼가구 중 유배우자로 한정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의 변화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성평등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해석된다.

#### 4. 맺음말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사활동의 분담에서 여전히 부인의 과중한 역할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사활동 전반에 걸쳐 약 70% 수준의 부인집중 현상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사활동 중에서 식사요리 준비, 설거지, 세탁, 집안청소와 달리, 시장보기의 경우 남성의 참여가 다른 가사활동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집중성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여성이 부업일 등 대부분의 가사일을 전담하고, 시장보기와 같은 일부 활동에서만 남성의 참여가 다소 많은 것은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이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저연령층 부부의 경우 남편의 참여가 고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저연령층을 중심으로 성역할 구분에 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성역할 구분의 관점에서 가사활동과 함께 자녀 양육활동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성은 동일하게 관찰된다. 자녀양육활동의 전반에 대해서 여성 집중성은 70~80% 수준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녀양육활동 중에서 자녀와 놀아주기의 경우만 여성 중심 비율이

60%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사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양육활동에서도 일부 역할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여성의 역할로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생활에 대한 부부간의 의사결정 방법에서 부인 중심의 결정권이 가장 크게 행사되는 항목은 일상생활비 지출 이었다. 반면 부부간의 공동 참여가 가장 두드러지는 항목은 주택매매 및 이사 결정과 투자 및 재산 증식에 관한 결정 이었다. 이 두 항목은 가구경제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서 여성의 권한이 과거에 비해서 강화된 측면을 볼 수 있었다.

가사활동과 양육활동의 부부간 분담실태에서 확인된 것과 달리, 성역할 인식에서는 전통적 성역할 구분이나 성차별적 인식이 크게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인식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주장, 또는 “불경기에는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시켜도 괜찮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수준이 특히 낮았다. 이런 변화는 전통적 성역할 구분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한테서도 나타나는 경향이였다.

이번 분석결과에서 우리는 인식과 행동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식의 차원에서는 전통적 규범을 탈피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및 각종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실제 가사활동이나 양육활동의 양성평등적 분담은 실천되지 않고 있다. 이 이유는 사회구조 또는 사회체계의 변화가 인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가부장주의의 전통이 강하게 유지되어 왔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식의 차원과 행위의 차원에서 불일치가 발생하였고, 이런 불일치로 인하여 가족단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사회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 단적인 예로 이런 성역할의 불일치는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수준이 개선되면서, 가족생활과 같은 사적 영역의 양성평등 수준과 격차가 발생하고, 공사영역의 양성평등 수준의 격차가 큰 사회일수록 저출산 경향이 관찰된다는 것이다.<sup>3)</sup> 따라서 양성불평등에 따른 가족 갈등을 방지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정책적 요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활성화, 근로시간의 축소, 남성의 육아참여기회 확대, 그리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경우, 2008년 도입되어 현재는 여성가족부 중

3) McDonald, Peter(2000). Gender Equity, Social Institutions and the Future of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17(1): pp.1~16; McDonald, Peter(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pp.427~439.

심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인증에 참여하고 있어 전체 기업으로 보편화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우 인증에 통과하기 위한 기업 내 여건조성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고, 기업에게 부여되는 실질적 인센티브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증의 단계를 다양화하여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낮은 수준의 인증 단계를 도입하여 소규모 기업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실질적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남성의 가사참여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연간 2,256시간으로 OECD 회원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sup> 장시간 근로 관행은 남성의 가사참여를 위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이나 제도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로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현재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남녀

구분 없이 사용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40% 수준이며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도 여건에서 남성들이 통상임금의 절반 이상을 포기하면서 육아휴직에 들어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성의 통상임금을 80%이상 지급하는 남성유아휴직을 단기간 동안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즉 1~3개월 정도의 남성 육아휴직 기간은 통상임금의 80%이상을 보장한다면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홍보사업은 어린이 학교교육부터 고등교육 및 사회교육과 기업대상 교육까지 단계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 및 사회에서 인구교육의 다각화가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예산의 규모나 활동 내용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향후 각 단위별 양성평등 교육의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전국민 대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사업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문**

4) OECD(2010). OECD Fact Book.